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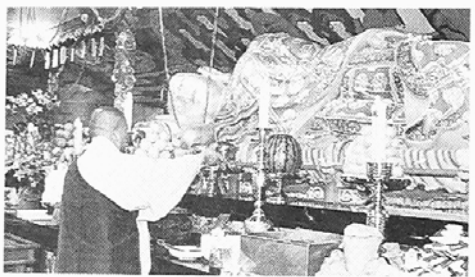
월주님 안휘성 서기장과 만찬

승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달 26일 태워호텔 한국관에서 한·중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안휘성 서기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법타스님,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 방조양(안휘성정부 고급고문), 장두성(대외문화교류협회 명예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휘성 서기장은 경주에 신라승 김교각스님의 동상 건립계획을 밝혔다.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 총회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경, 동국대학교)는 지난 달 24일 동국대 동국관에서 창립 총회 및 기념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박선영교수가 초대회장에, 명성여고 김형중 교법사와 대전대 윤기봉교수가 감사에 각각 선임됐으며, 임태평, 김용표, 이장용, 황옥자, 방정애교수 등이 참석했다.



구룡사 극락전 열반상 점안식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는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 구룡사 5층 극락전에서 열반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태웅스님(불교텔레비전 사장)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현대불교 부산지사 개원기념 고은 선생 초청 법회

지난 달 10일 개원한 현대불교 부산지사가 개원을 기념해 고은선생 초청 대종법회를 개최했다. 본지 논설고문이며 우리시대 최고의 문화가인 고은 선생은 이날 법회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참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임이다. 부산·경남지역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

◇고은 시인

■주 제: 천진난민의 경전-화엄경의 한 측면
■일 시: 1995년 7월 11일 오후 7시
■장 소: 범일동 동보빌딩 4층 현대불교 부산지사 강당 (국제호텔 뒷편)
■문의 의: (051) 634-5114
■강 사: 고은 선생(시인·본지 논설고문)

게시판

▲전통집승김자 개강=불가침구학회(회장 이흥재)는 전통집승김자 기초반을 3일 개강한다. 월·화·수 오전10시 수업. (02)725-7932
▲이간학교 학생모집=김을중합사회복지관은 국졸자나 중학중퇴자를 위한 무료 야간학교 학생을 모집. (02)985-0161
▲자기표현훈련=목동정소년회관이 방학을 맞은 국민학생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특강을 오는 24일부터 8회에 걸쳐 실시. (02)646-6818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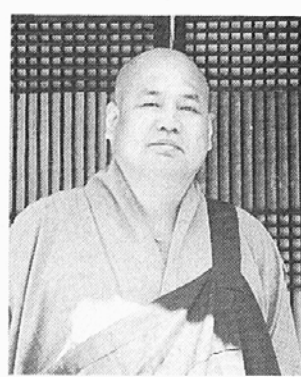
"엄마! 스님이 그러시는데 부처님은 우리같은 꼬마친구들을 좋아하심네."
준이(영희학교 2)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앉아만 계시는 부처님이 자기와 같은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의외인 듯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마냥 신나기만 하다.
금하선원이 지난 24일 토요일 강남구 일원동 일원공원에 마련한 '차 한잔의 사랑 나눔마당, 소년소녀 가장 및 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조성 일일차 대접' 행사장.
공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엔 멀리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선다. 책바위 돌듯 학교와 학원을 전전공공하며 버거한 놀이문화 한번 누려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그 어느

"화엄사상 기초로 종단 교육체계 확립 한국불교 대중성 확보 주력"

화엄학립 초대학장 연관스님

"화엄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토양입니다. 화엄학립은 화엄의 사상과 선(禪)이 만나 새로운 빛을 내뿜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화엄학립의 초대학장 연관스님은 한국불교가 관념불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역사상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고준한 사상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일이며, 화엄학립은 이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으로 △조계종 교육체계의 확립 △교육의 방법과 내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관은 불교, 그 가운데서도 화엄사상이 가장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수확기간 2년동안 화엄현담 화엄경 화엄경소 화엄학개론 화엄교과사 그리고 화엄과 수행을 중 주로 '화엄'을 공부한다.
화엄학립이 종단의 교육체계를 바로잡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장스님



을 중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연관스님은 "소규모의 강원에서 전문학립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교육체계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구佛放 추진위원장

설조스님 (불국사 주지)은 지난 18일 대구 불교방송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위촉됐다.

'깨달음의 장' 수련회 개최

법륜스님 (불교환경교육원장)은 3일부터 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공존체 형성을 위한 수련프로그램인 '깨달음의 장'을 네차례에 걸쳐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청교련 중앙이사 피선

진영스님(과천 보광사 주지)이 지난 14일 (사)대한불교청소련교화연합회 중앙 이사로 조영숙씨와 함께 정식 승인됐다.

미주 BBS 후원회장 취임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지난 15일 미주 L.A 불교방송 후원회장에 취임했다.

미얀마 안거차 출국

자명스님(시인)은 안거를 끝쳐 지난 29일 미얀마로 출국했다. 스님은 양곤 수행사에서 안거

서울갤러리서 풍경화전

박명순씨(한국중경화회 부회장)가 자연의 빛깔과 향기를 독특한 터치로 선보인 '풍경화전'을 오는 9일까지 태평로 서울갤러리에서 갖는다.

서울시정 조순씨 부인 김남희 보살

김보살이었던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제 남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며 서울시정 출마를 결정한 남편을 위해 고아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달동네를 찾아 강행군을 했다.

수미정사서 아함경 강연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학)는 7일 오후 7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수미정사에서 백화도량(삼일법사 김효성)이 마련하는 제3회 특강법회에 참석, '아함경은 중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02)929-0929

부산불교 거서림회 공병수 회장

"무능한 사람이 막중한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지난달 27일 부산불교거서림회 제10대 회장 취임식에 앞

동서심리학회 연구소 이광준 소장

"마음의 병(弊)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론을 심리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심리학회입니다. 이 동양의 심리학은 세계화시대에 서양

불사후원등 초발심 자세로

선 공병수(59, 법명 峯山)씨의 소감이다.
창립 2년뒤인 74년에 입회, 89년 제7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공씨는 선배 역대회장들의 불교발전을 위한 노심초사 덕분으로 오늘의 거서림회가 있게 되었다며 경험담은 역대회장과 회원들이 한데어리가 되는 거서림회를 만들어 가겠다.

불교청년회 이상번 회장

지난 6월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불교우호회의에 다녀온 뒤로는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는데 앞장서는 일과 연변조선족에 한결같은 애정을 쏟고 있다.

불사후원등 초발심 자세로

거버다 많이 나이지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의 이전과 불교텔레비전, 불교방송 개국 등으로 도제양성, 포교가 활성화되고 있어 불교의 앞날은 희망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중회장은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조직적인 면에서 치밀하지 못해 각종 불사나 사회활동 등의 원만 회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불사후원등 초발심 자세로

때보다 생각이 든다. 2천년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밝은 마음과 깨끗한 세상을 일구는 데 남다른 관심과 함께 활동을 펴 오던 청암스님과 금하선원의 1백여 불자들이 오랫동안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동안 계획해 오던 어린이대축제를 위해 꼬마친구들이 속속 모여들자 아이들 못지않게 흥분된 표정들이다.
금하선원의 1백여 불자들은 어린이 교육과 포교에 출가한 후 어린이 교화에 줄곧 뜻을 펴 오던 청암스님과 함께 하는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오늘은 너희를 날이니 맘껏 웃고 놀라." "아름다! 까까머리 스님도 저희랑 똑같이 웃고 계시네요." 아이들의 호기심 섞인 한마디 농담에 행사장 안팎은 웃음바다가 됐다.
어린이 대축제를 계기로 청소년가장에게 백미 30여 가마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와 감로상장제단에 기금을 전담한 정암스님과 행사진행 불자들은 이날 함께한 어린이들이 불교와 가까워진 것 같아 흐뭇하니 했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지, 자기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라며 특별히 초청돼 온 소년소녀 가장의 용기를 돋우는 부처님 법과 사랑이 전해진다. 그리고 일원공원에 어린이, 부모님 노래자랑이 한창이다. (도필선 기자)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따뜻한 자비손길 동심 꽃피워” 소년소녀 가장·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 조성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재정자립·교계 지원 절실”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기 추모법회를 병행한 대불청회장 이상번씨는 스님의 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기반 달성과 교계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어린이·학생에서 일반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문화는 생산적 소비문화라는 이씨는 “불교청년문화이탈로 지방화시대의 지도자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불사”라고 강조한다.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을 1월 취임후 적지않은 사재를 들여가며 불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씨는 3월1일에는 만해백일장을 개최했고 4월2일에는 42공구묘의 만해교육원을 개원하여 북한으로부터 기증받은 백자불상등 불상 2점을 봉안했다.

금하선원 사랑나눔마당

앞으로 만해학교(학교장 석주스님 내정)를 설립하는게 당면과제라는 이씨는 “청년불교가 서야 불국토가 이룩된다”며 말을 맺는다. (윤)

6·27 광역 기초 단체장 불자 당선자

지난 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불자이거나 친불교적인 성향의 인사가 다수 당선된 가운데 시·도지사 15명중 5명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불자라고 밝힌 당선자는 홍성기(59, 대전시장) 주병덕(59, 충북지사) 허경만(57, 전남지사)씨 등이며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조순씨(67)와 부산시장의 문정수(56)씨도 교계에서는 친불교 인사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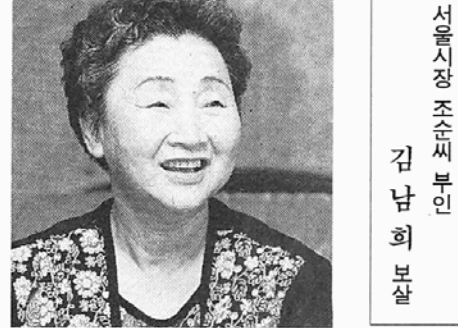
조순 문정수 씨 등 시도지사 5명 영예

무종교인 3명, 기독교인 4명, 천주교인 3명으로, 비슷한 종교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배영(서울 은평구청장) 김두기(서울 영등포구청장) 임태항(경북 봉화군수) 정재호(전남여천시장) 박광용(김천시시장) 김학문(문경시장) 김근수(상주시장) 김기인(경북도원읍) 박두필(경북도의원)씨들 다수의 불자들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서울시장 조순씨 부인 김남희 보살



“임기동안 불심 내조 하겠어요”

“여러 불자들의 성원으로 껍질하나 벗은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임기가 끝날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조순씨 부인 김남희(보현행 64)보살은 “선근을 통해 서울시장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를 알게 되었다”며 “올바른 남편 봉양이 불자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보살의 선행은 어려서부터 시작돼 결혼해서는 풍양 조씨 시조가 창건한 남양주 견성암에서 선행활동을 이었고 봉헌동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15년째 강남 봉은사를 찾고 있다.
결혼생활 49년째로 4형제를 보란듯이 키워낸 김보살은 신임 조순 서울시정에 대해 “이제껏 손에서 책을 놓은 모습을 본 적이 드물다”며 “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실천하고 부당한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지만 손수 차를 끌이는 자상한 남편이다”고 소개한다.

이준업 기자

대한불교청년회 이상번 회장



지난 29일 만해 환웅문선사 열반 51주

“재정자립·교계 지원 절실”

“어린이·학생에서 일반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문화는 생산적 소비문화라는 이씨는 “불교청년문화이탈로 지방화시대의 지도자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불사”라고 강조한다.